

David Turner 박사, 요한복음, 세션 7, 요한복음 5장

© 2024 데이비드 터너와 테드 힐데브란트

이것이 David Turner 박사와 요한복음에 대한 그의 가르침입니다. 7과, 논쟁, 예수님의 두 번째 예루살렘 여행입니다. 요한복음 5:1-47.

안녕하세요, 저는 데이비드 터너입니다. 여기서 또 다른 John 비디오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5장에 관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은 예수님을 위해 예루살렘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문제를 설정하기 때문에 요한복음에서 크게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안식일에 베데스다 못가에서 앉은뱅이를 고치시는 예수님을 보게 될 장입니다. 절름발이는 이야기에서 알 수 있듯이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를 비난하고 동정심 없는 성격을 띠게 됩니다. 나중에 요한복음 9장에서 예수님이 고치신 사람이 어떤 의미에서 더 동정심이 많고 바리새인들에 대해 예수님의 편에 선다는 것을 연구하면서 알게 될 것입니다. 반면 요한복음 5장의 이 인물은 더 일치하는 사람이 됩니다. 바리새인들과 함께 예수를 비난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실 때, 예수님은 그에게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시며, 그의 상황을 9장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외에 아무 이유 없이 병에 걸렸으며 아무 일도 하지 못한 소경의 상황과 대조하십니다. 죄로. 그러니 여기에서 일어나는 일과 요한복음 9장에서 일어나는 일을 마음속에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자신에 대한 증언이 모세와 세례 요한의 증언으로 어떻게 강화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의 사역과 그 사역을 통한 아버지 자신의 이야기, 그리고 여기에서 언급된 예수와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 사이의 갈등이 어떻게 이 책의 끝까지 계속될 주제를 불러일으키는지에 대해 설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5장에서 내러티브와 그것이 함께 흐르는 방식에 대한 우리의 습관을 살펴보십시오.

그리하여 예수님은 두 번째 예루살렘 여행을 시작하셨습니다. 우리는 북쪽 갈릴리 가나에서 그분을 마지막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못가에서 중풍병자를 고치고 계십니다.

우리는 본문의 문제 때문에 본문 비평에 관한 두 번째 비디오에서 이 사건을 조금 언급했습니다. 아마도 당신은 그것의 세부 사항 중 일부를 기억할 것입니다. 못가에서 사람을 고치신 후, 일련의 복잡한 상황을 통해 예수님과 바리새인 사이에 논쟁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먼저 예수께서 안식일에 이 사람을 고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들이 보기에 그가 이 사람에게 안식일을 어기도록 유도한 것은 그가 그에게 요청하고, 원한다면 일어나서 그의 침대를 가져가라고 말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침대는 확실히 우리가 Sirta가 만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짚으로 만든 매트리스 같았거나 롤업 침낭과 같은 배열이었습니다.

확실히 침대처럼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에게 그냥 떠나라고 말씀하셨고, 그의 소지품, 침대보, 배낭 등 무엇이든 가지고 나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리새인들이 예수께서 안식일에도 일하라고 말씀하실 때 사용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안식일에 일한 것에 대해 사과하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자기 아버지도 안식일에 일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물론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 문제를 악화시키는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하게 만드는 것으로 여겨졌는데, 이제 독자의 관점에서 문학학자들은 전지한 서술자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서술자의 관점에서 볼 때, 예수님은 참으로 하나님과 동등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종교 지도자들이 받아들일 만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상황이 더욱 악화되어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뿐 아니라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18절을 통해 이 장의 나머지 부분에서 일종의 담론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사건을 보았습니다. 예수의 가르침은 그가 자신의 사역을 옹호하고 다음과 같이 말하는 논쟁에서 나옵니다. 자신은 오직 아버지를 위해서만 말하고, 아버지께서 그에게 행하고 말하라고 주신 것 이상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그가 나에게 문제가 있다면 당신은 내 아버지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말한다면, 이것은 그가 자신을 위해 증언하는 것에 대해 말하는 장의 한 부분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당신이 직접 증언할 수 없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증인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는 기본적으로 예수에 대한 다섯 명의 증인이 있습니다. 예수 자신뿐만 아니라 그는 세례 요한의 증언, 즉 그가 행하고 있는 표적, 즉 행위를 다시 언급합니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그를 통하여 하시는 일들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께서 행하신 일을 통하여 예수를 증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여기서 예수님에 대한 가장 중요한 증인은 모세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본질적으로 문제의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을 범하고 모세에게 불순종했다는 비난을 받고 계십니다. 그리고 만약 예수께서 그렇게 했다면 모든 베틱은 취소되고 토론은 끝난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의 사역의 그러한 특징을 받아들이지 않으십니다. 너희는 모세를 이해하지 못하는 백성이라고 하십니다. 내가 하는 일은 모세의 뜻과 완전히 일치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모세를 믿고 그를 올바르게 이해했다면, 나도 이미 믿었을 것이다. 그래서 오래된 속담처럼 여기 5장에서는 정말 팬들을 놀라게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논의되고 있는 이러한 문제들은 확실히 이 책에 나오는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의 논쟁에서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생각의 흐름에 대한 단순한 개요를 지리적 배경과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로 전환합니다. 물론, 이 일은 예루살렘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우리가 알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곳은 성전산 북쪽에 있는 베데스다

못에서도 일어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베데스다 못은 현관이 다섯 개로 이루어진 상당히 큰 시설이었을 것입니다. 현관은 분명히 네 면이 있고 하나는 중앙을 가로지르는 것 같습니다.

수영장의 유적은 고고학자들에 의해 연구되었으며, 관광객이 예루살렘에 가면 볼 수 있는 예루살렘 모델이 이러한 방식으로 묘사됩니다. 성전 산 북쪽에 위치한 이 풍경은 다소 남쪽, 아마도 약간 남서쪽에 있으며, 안토니아 요새는 성전 산 자체의 북서쪽 모퉁이에 있습니다. 이것은 성전 산에 있는 지성소가 될 것이므로 전망을 볼 수 있습니다.

수영장으로 들어오고 나가는 다양한 경로가 있는 또 다른 각도입니다. 이 못은 아마도 희생 제사를 위해 동물을 씻는 데 사용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유대인의 의식적 순결을 상징하는 미크베(mikveh)로도 사용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꽤 놀라운 설치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오늘 예루살렘을 방문하여 성 안나 교회 근처의 이 유적지를 보게 된다면 우리는 실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고고학적 지층과 이 유적지 위에 건설된 다양한 시설, 비잔틴 교회 및 이 건물에 대한 실제적인 이해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원본이 어떻게 생겼는지 이해할 수 있는 실제 능력이 없습니다. 그것을 발굴하고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해하는 사람들은 모델을 만드는 사람들에게 통찰력을 주었고, 따라서 모델은 그것이 어떻게 생겼을지에 대한 좋은 교육받은 추측입니다. 불행하게도 우리가 거기에 가면 그 사이트에서 실제로 많은 것을 얻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가신다면, 성 안나 교회에 가서 노래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곳의 음향은 놀랍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요한복음 5장의 문맥을 살펴보고 거기서 생각의 흐름을 조사할 때 전개되는 몇 가지 선택된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은 예수님께서 유대 명절을 맞아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축제의 이름은 실제로 지정되지 않았으며, 논쟁이 벌어지는 것은 축제에 관한 것이 아니라 안식일과 관련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연구한 사람들은

요한복음에서 진행되는 유대인 축제에 관해 많은 내용이 담겨 있다는 것을 주의 깊게 깨닫습니다. 실제로 요한복음 5장부터 10장까지는 축제주기라는 용어가 흔히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런 종류의 일이 진행됩니다. 그러면 요한복음에서 이러한 축제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5장에서는 안식일에 관한 논쟁이 나옵니다.

물론 우리는 출애굽기 20장, 신명기와 구약 전체에 걸쳐 안식일에 관해 광범위한 가르침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랍비의 가르침을 가장 먼저 성문화한 미쉬나(Mishna)가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어떻게 안식일을 지키지 말아야 하는지, 무엇이 유효한 안식일인지에 대해 많이 언급하고 있는 쟁점 중 하나였습니다.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에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의견을 달리하신 핵심 분야 중 하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요한복음 7장과 9장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요한복음 5장과 함께 요한복음 9장을 강조합니다. 그 이유는 그 이야기들이 흥미롭게 유사하면서도 다르기 때문에 비교하고 대조하는 것이 재미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장인 6장에는 유월절과 유월절에 관해 많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신 이유입니다. 우리는 요한복음에서 유월절에 대한 언급을 여러 번 발견합니다.

우리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방문하신 세 가지 유월절 사건을 발견합니다. 이것이 바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3년 사역을 하신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의견을 갖고 있는 이유입니다. 이는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수집한 자료입니다. 학자들 사이에서 역사성이 가장 의심되는 복음서인 요한복음이 그 내용을 받아들이는 학자들에게 예수의 사역이 약 3년 동안 지속되었다는 이해를 주는 책이라는 점은 다소 흥미롭습니다.

우리는 출애굽기뿐만 아니라 신명기 16장, 그리고 신약성경의 다른 많은 본문에서 유월절에 관해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행해져야 하는지를 읽습니다. 초막이나 장막은 요한복음 7장의 쟁점이며 실제로 요한복음 8장까지

계속됩니다. 내 생각에 우리는 여전히 7장에서 시작되는 예수님의 원래 방문을 바탕으로 유대 사람들과 예수님의 의견 차이를 다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9장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10장의 첫 부분인 선한 목자의 담론도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그분이 처음 방문하셨을 때 벌어지고 있던 일에서 실제로 흘러나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때때로 부르듯이, 아마도 초막이라고 부르는 것이 더 나은 단어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서양 용어로 성막은 대리석 장식이 있는 돌로 만들어진 큰 건물이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성막은 매우 소박하고 거대한 건물인 반면, 성경에서 성막은 성전이 건축되기 전에 하나님이 이동하실 수 있는 임재일 것입니다.

초막절 또는 초막절(히브리어 수코트)은 본질적으로 추수를 축하하고 사람들에게 광야 방랑을 상기시키는 축제이며, 동시에 유대인들이 밖에서 살았던 가을 축제인 것 같습니다. 특히 요한복음 7장에 이르면 초막절의 배경에 관해 더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10장 중반에는 수전절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봉헌절은 성전이 재헌납된 절기입니다. 그것은 기원전 160년대 중반에 셀레우코스 왕조의 통치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 의해 모독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구약성경에서 직접 언급되는 절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보를 찾으려면 마카베오서 1장 1절을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 때는 성전 봉헌식과 축하의 시간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는 이에 관해 간략하게 언급되어 있지만 거기에는 많은 내용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순절 절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요한복음 10장에서 모두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누가-사도행전과 특히 누가가 사도행전을 구성하는 방식에 중요성을 갖습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요한복음에 오순절이 언급되지 않았다는 생각으로 여러분을 놀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20장에서 제자들에게 숨을 쉬시거나 손을 얹으심으로써 제자들에게 성령을 분배하시는 방식에 대해 몇 가지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하시고 나중에 20장에 이르면 그에 대해 더 많이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무엇을 하고 계셨는지, 요한복음 20장과 사도행전 2장 그리고 공관복음의

나머지 부분 사이에 일종의 역사적 모순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말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요한복음 5장을 보기 시작할 때, 실제로는 요한복음 10장까지, 그리고 궁극적으로 예수님은 유월절 12장에 예루살렘에 오십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 아버지와의 관계와 그분의 사역을 어떻게 구별하시는가에 있어서 무엇보다 눈에 띄는 한 가지는 그분이 그분의 사역에서 자신을 어떻게 묘사하시는가입니다. 아버지와의 관계. 그러므로 예수께서 내 아버지라는 표현을 사용하셨을 때 청중은 그것을 일종의 모욕으로 여겼습니다.

분명히 그들은 그에게 특별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아버지께 말씀드릴 권리가 없다고 생각했으며,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와 마찬가지로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5장 17절에서 이 표현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살펴보면 요한이 서문에서 예수 가 어떻게 아버지의 대리인이었는지에 대해 이야기 한 내용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1장 18절에 예수께서 아버지 곁에 계신 자이시요 아버지의 품에 계신 자이시니 곧 아버지 품 안에 계신 이라는 놀라운 말씀이 있느니라, 원한다면.

그래서 우리는 특히 여기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살펴보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16절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유대인 지도자들과 만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이 행한 일 때문에 예수님을 박해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그들을 변호하시며 “내 아버지께서 오늘날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예수께서 하신 매우 놀라운 말씀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입증하실 뿐만 아니라, 내가 그와 함께 일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과 아버지가 협력적인 관계를 갖고 있음을 확언함으로써 마음속으로 너무 많은 부담을 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안식일에 일한다는 방식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18절에 보면, “이러므로 그들이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되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 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셨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서문과

서문과 이 장 사이에 일어난 다른 일들에 비추어 이 구절을 읽는 유익을 얻은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님의 특별한 관계를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은 사실상 하나님 자신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마도 예수께서 이와 같은 놀라운 말씀을 하신 것이 우리 마음속에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청중은 그것에 대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계속해서 그들에게 자신과 아버지께서 이곳에서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설명하시고 나중에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10장, 그리고 요한복음 15장까지 전개되는 주제를 다루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20장에도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의 결론은 아버지의 대리인으로서 아마도 죄를 짓는 사람과 동일한 사람의 대리인인 사람의 샤리아흐에 대한 랍비의 가르침이 이것과도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자신이 계속 진행하면서 그것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고 단언합니다.

그는 단순히 아버지께서 그에게 인도하신 일을 본질적으로 성령에 의해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은 아무 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느니라. 그분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본 것만 하실 수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아들도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가르침 중에 그는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는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도 꽤 흥미로운 종말론에 들어갑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이야기해 보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서는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과 같이 자기도 영광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23절).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눈에서 예수님의 지위를 높이는 것이며, 이것은 아직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지 않거나 예수님을 믿게 되지 않는 사람들에게 싸우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31절에서 선택되어 예수님에 대한 간증에 대해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이 실제로 아버지께서 주장하신 사람임을 보여주는 것과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스스로 아무 것도 하지 않으십니다. 아마도 우리는 여기서 잠시 멈추고 이 정보를 조직 신학자들이 예수와 케노시스 교리 및 이러한 모든 유형의 것들에 대해 말하는 방식에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두 본성에 관한 교리. 나는 일부 신학자들이 나에게 매우 의심스러워 보이는 몇 가지 진술을 하는 것을 듣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서 이것을 하기 위해 인성으로 행동하시거나, 저것을 하기 위해 그의 신성한 본성으로 행동하신다고 말할 때.

그리고 우리는 때때로 사람들이 예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는 그분의 신성한 본성으로 행하시고, 다른 일을 하실 때는 인간의 본성으로 행하신다는 식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을 듣습니다. 나는 이것이 나에게 매우 이상하게 보인다고 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요한 복음 5장과 그 문제에 대한 성경의 다른 본문에서 예수님이 자신이 행하는 모든 일을 아버지께 돌리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으로서 예수님이 길 한쪽으로 가면서 신성하게 행동하시고, 길 반대편에서 인간적으로 행동하시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행동하지 않으신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솔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는 일 중 아버지께서 자기 안에서 하시는 일이 아닌 것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주시므로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일을 하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세례 요한은 1장에서 성령이 내려와 머무시는 분이 하나님의 어린양이심을 우리에게 지적했습니다.

예수께서 자신의 모든 일을 아버지께 돌리신 것에 대해 읽을 때, 인간 사역 중, 성육신 상태에서 한 번도 자신의 의지에 따라 직접적으로 행동하셨거나 자신의 신성한 본성에 따라 행동하신 적이 없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은 아버지께서 그에게 하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이것은 많은 문제를 해결하고 예수님을 더 인간적인 존재로 만듭니다.

물론 그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있던 사람으로서 아버지께서 하라고 주신 일만 행하신다면, 그것은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는 아버지의 뜻에 따라 우리의 삶을 형성하려고 노력하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주시는 일만 하려고 노력하면서 이 점에서도 그분을 따라야 합니까? 나는 이러한 맥락에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께 큰 문제를 야기한 이러한 진술을 고려할 때 속고할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정보가 그들에게 아버지의 일에 대해 알려주고, 그분 자신의 일은 심판에 관해 이야기한다는 것을 전에 알아차렸습니다.

여기 5장 24절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행동입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음으로 옮겨졌느니라. 삶.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중요한 말이 이것이니 곧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것이요 듣는 자는 살리라. 그러므로 때가 다가오고 있으며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죽은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을 가지신 것처럼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습니다. 인자이기 때문에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에 놀라지 마십시오. 28절에 보면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듣고 나올 때가 이르리라 하셨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살아날 것입니다.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때가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분은 말씀하지 않으셨고 지금이 다가오고 있음을 주목하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28절을 25절과 다시 비교하여 이 표현을 주목합니다. 때가 다가오고 있으며 지금이 그러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예수께서는 미래의 심판이 있을 것임을 부인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장래에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단언하고 있지만 심판은 이미 시작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의미에서 종말론을 현재로 옮기셨고, 예수께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설교하고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

하시는 일에 대해 가르치실 때, 그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어떤 의미에서 최종 심판의 전조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사람들을 살리실 때 사람들이 그분을 믿고 그들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올 때, 우리는 이미 요한복음 3장에서 두어 군데 논의한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들은 죽음에서 나와 생명에 들어갑니다. 그들은 하나님과의 분리의 산 죽음인 삶을 떠나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교제의 삶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여기 24절과 25절에서 종말론적인 용어로 이 일이 이미 일어나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판단은 먼 미래에 일어날 일이 아닙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이 여기서 부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미래에 일어날 일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거나 실제로 예수님을 거부하는 모델로 사용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예수님을 거부한다면 요한복음 3장의 말씀에서 이미 정죄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 요한복음 5장에서 우리는 이것을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학자들은 이 문제를 파악하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설명하려고 할 때 이에 대한 언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래의 심판을 미래 종말론으로 묘사하는 성경 본문을 자주 듣습니다. 일부 종교 단체와 교파는 종말론을 엄격히 미래적인 것으로 지향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것을 실현된 종말론의 관점에서 생각합니다. 즉 그들은 왕국이 이미 예수 안에 임했고 하나님이 이미 그의 미래의 능력을 나타내기 시작했다고 말하는 것이 훨씬 더 편안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것을 설명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개시된 종말론이라고 불리는 용어일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미래에 하실 일을 이미 현재에도 조금씩 보여 주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불러내시어 그분과의 교제의 삶으로 불러내시면서 이미 행하신 일은 하나님께서 장차 세상과 함께 하실 일을 맛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GE Ladd가 얼마 전에 쓴 미래의 존재(The Presence of the Future)라는 아주 좋은 책은 이것을 아주 잘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제목은 여기 John에게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영원한 운명이 그분에 대한 그들의 반응에 따라 결정된다는 의미에서 미래가 이미 존재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당신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알아내기 위해 최종 판결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이 나에 대한 당신의 반응에 의해 이미 결정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이전 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셨을 때, 때가 오나니 곧 아버지께서 영과 진리로 자기에게 예배할 자들을 찾으시는 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중에 16장에서도 예수께서는 미래에 대해 말씀하실 때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표현을 사용하시고 지금이 지금이라고 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다가오는 이 시간과 지금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끝날 무렵에 요한의 종말론에 대한 강의를 할 계획입니다. 우리가 설정한 대로 21번이나 22번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볼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주제로 다시 돌아가서 더 완벽하게 개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 또 다른 놀라운 점은 예수께서 자신에게 증인이 몇 명이나 되는지에 관해 어떻게 말씀하시도록 강요당했는지입니다.

이 정보는 31절에서 시작되며, 이 장의 앞부분에서 그가 종교 지도자들과 가졌던 논쟁에 대한 일종의 확장된 결론이 이어집니다. 내가 나 자신에 대해 증언하면 내 증언은 사실이 아니라고 그가 말할 때, 그것은 그가 자신에 대해 증언할 때 그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었는지 거의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마도 당신이 자신에 대해 증언할 수 없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당신에게는 그보다 더 나은 증언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그들이 자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인정하심으로써 그들 밑에서 그들의 다리를 잘라내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는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계시고 나는 나에 대한 그의 증언이 참인 줄 안다 하며 분명히 32절부터 35절까지 에서 세례 요한을 언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나에게 요한의 증언보다 더 큰 증언이 있다고 말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나에게 완성하라고 맡기신 일들, 내가 하는 이 일들이 나에게 대하여 증거하고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증거하느니라. 그래서 그분은 방금 일어난 일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방금 연못가에서 중풍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예수님께서 행하고 계신 하나님의 일입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은 나를 통하여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이라 이 일이 내게 증거한다고 하셨습니다(36절).

그러므로 예수님에 대한 세 번째 증인은 아버지의 증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버지 자신이 나에게 대하여 증언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 음성을 보지도 못하였고 그 음성을 듣지도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본 적도 없고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도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므로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나를 통하여 증언하시되 너희가 그의 증언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을 통한 모세의 증언은 39절 이하에서 강조됩니다. 여러분은 경전 안에 영생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경전을 부지런히 연구합니다.

이것이 바로 나에게 대하여 증언하는 성경이니라. 39절을 명령문으로 취하는 일부 성경 번역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모호하고 번역하기 어려운 그리스어 문법의 한 측면이며 문맥에 따라 결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중 일부 그리스어를 본 사람들은 2인칭 복수 현재 명령형이 2인칭 복수 현재 직설법과 정확히 같은 형태라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킹제임스 성경이 39절을 명령문으로 취하여 이렇게 번역한 것 같습니다. 경전을 연구하고 경전을 부지런히 연구하십시오. 그 안에 영생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경전을 공부하라고 말씀하실 필요가 없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나에게 더 잘 이해됩니다. 그들은 분명 경전을 공부하는

학생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그것을 인정하시고 슬프게도 당신들이 성경을 공부하는 학생들이라고 말씀하심으로써 그들을 반대하고 계십니다.

당신은 경전 안에 영생이 있고 예수님도 경전에서 그들이 영생을 얻었다는 점에 동의하실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지런히 경전을 연구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경을 잘못 읽었습니다. 그는 이것이 바로 나에 대해 증언하는 성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생명을 얻기 위해 나에게 오기를 거부한다. 41절은 하나님의 영광보다 인간의 영광을 원한다는 관점에서 이것을 좀 더 발전시킵니다. 그리고 결국 45절부터 47절까지 그는 모세에 대한 이 생각으로 돌아와서 내가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고소할 필요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당신을 고소한 사람은 당신의 희망이 있는 모세입니다. 그들이 영생을 연구한다고 생각해서 모세를 연구했는데, 모세를 연구하면 할수록 예수님을 더 그리워한다는 것이 참으로 아이러니합니다. 모세를 믿었다면 나를 믿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나에 관해 기록하였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가 쓴 것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내가 말하는 것을 믿겠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에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구약성경, 특히 토라에 대한 그들의 이해는 예수의 가르침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토라에 대한 그의 이해는 여러 면에서 그들의 이해와 정반대입니다. 특히 여기에서 문제를 일으킨 문제인 안식일과 관련하여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점에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관해 말씀하신 방식에 관해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따라서 5장의 결론은 기본적으로 예수를 따르기를 원하는 개인으로서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의 관점에서 이 장을 어떻게 생각하는가입니다.

마가복음 12장과 누가복음 6장에서는 예수님을 안식일의 주인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즉, 그분은 안식일을 제정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안식일보다 더 크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명백히 신성에 대한 간접적이고 암묵적인 주장이다.

하나님 외에 누가 안식일에 그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할 권리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도 마가복음 2장 27절을 통해 안식일을 지키려고 사람을 지으신 것이 아니요 안식일은 사람을 돕기 위해 있는 것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은 모세의 율법 전체에 대해 하나님이 그의 백성과 맺은 언약이 그들의 삶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성품에 더욱 일치하게 함으로써 그들의 삶을 더 좋게 만들도록 돕기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모세와 율법을 올바르게 이해한 사람들과 오늘날 그것을 올바르게 이해한 신학자들은 율법 자체에 대해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율법은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선하고 의로우며 거룩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안식일이 인간의 방식을 억압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과도 일치합니다. 그들을 돕기 위해.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바리새인들의 종교적 전통이 잘못되어 그들이 안식일을 인간에게 축복이라기보다 더 무거운 짐으로 만들고 있다는 관점에서 분명히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성육신이신 예수님은 자신의 일을 행하시고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십니다. 안식일에 일할 권리는 오직 하나님만이 갖고 계시며,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그 일을 행하시므로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그는 바리새인들이 하는 방식에 어긋나는 생각으로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리면서 우리는 아마도 5장의 중심 부분이 이 단어로 표현되어 있다는 것을 이 본문의 힘으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아버지도 공경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공경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을 합당하게 공경할 수 없습니다. 흥미롭게도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는 천사들이 4장에 보좌에 앉으신 분에게 경배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5장에는 인자가 소개됩니다. 거기서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소개되고 요한계시록 5장에서

찬양이 끝날 무렵에는 4장에서 보좌에 앉으신 분에게 주어진 동일한 찬양이 이제 어린양에게도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5장에서는 모든 피조물이 보좌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을 찬양하는 것으로 묘사됩니다. 이는 예수님의 신성과 그분이 아버지의 권위를 행사하는 대리자라는 사실에 대한 더 강력한 증거인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께서 여기서 가르치셨던 것이 바로 이것이며, 아마도 요한복음 신학과 묵시 신학 사이의 어느 정도 유사성을 보여 주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David Turner 박사와 요한복음에 대한 그의 가르침입니다. 7과, 논쟁, 예수님의 두 번째 예루살렘 여행입니다. 요한복음 5:1-47.